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 리듬체조 5위 ... 손연재는 예뻐다

## 근봉 놓쳐 메달 불발

### 단숨에 세계 정상급 도약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8·세종고)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에 위급가는 성적을 남기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손연재는 11일(현지시간) 런던 웹블리 아레나에서 끝난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선에서 111.475점을 받아 5위를 차지했다.

동메달을 딴 류보 차르카시나(벨라루스)와의 점수 차는 0.225점에 불과했다.

약점으로 지적돼 온 근봉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탓에 아쉽게 동메달 획득이 불발됐으나 손연재는 세계 정상급 선수로 도약하면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특히 올해 다섯 차례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시리즈에서 개인종합 톱 10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손연재는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리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

러시아와 과거 동구 유럽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이번 대회의 최대 성과다.

이 종목 최강인 러시아의 예브게니야 카니야바와 다리아 드미트리야바가 금·은메

달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동메달을 어느 선수가 차지할 것인가가 이날의 관전 포인트였다.

예선 성적 3~6위로 결선에 올라온 알리아 가리야바(아제르바이잔), 실비아 미테바(불가리아), 차르카시나 그리고 손연재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후프와 볼에 강점을 보인 손연재는 예선과 마찬가지로 두 종목 연기를 흠잡을 데 없이 마치며 중간 순위 3위를 달렸다.

미테바가 두 종목에서 모두 27점대에 그치면서 동메달 경쟁에서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고 치열한 삼파전이 전개됐다. 그러나 손연재는 근봉에서 전날에 이어 또 실수를 범해 두 선수와의 격차를 벌리지 못했다.

공중에서 낙하하는 근봉을 모두 놓친 손연재는 26.750점에 그친 반면 차르카시나와 가리야바는 각각 손연재보다 0.8점 가까이 높은 27점대를 받아내며 전세를 뒤집었다.

손연재는 리본에서 역전을 노렸으나 변별력이 크지 않은 리본에서 경쟁자들도 좋은 점수를 얻어내면서 순위는 차르카시나, 가리야바, 손연재 순으로 굳어졌다.

손연재는 결선에서 메달보다는 후회 없는 연기를 펼치는 데 주력했으나 박빙의 차이로 승부가 갈리면서 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아쉬움을 당분간 간직하게 됐다. /연합뉴스

## '요정'의 깜찍 연기

11일 오후(현지시간) 런던 웹블리 아레나에서 열린 2012년 런던올림픽 리듬체조 결선 경기에서 한국 체조요정 손연재가 리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펠프스·볼트·양학선 뜨고 '미녀새' 이신바에바 추락

## 런던올림픽 뜬☆ 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는 4관왕에 올라 개인종합 올림픽 메달 개수를 22개(금 18·은2·동2)로 늘렸다.

또 '번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육상 남자 100m, 200m, 계주 400m에서 타이틀을 방어해 2008년 베이징 대회에 이어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최초의 스프린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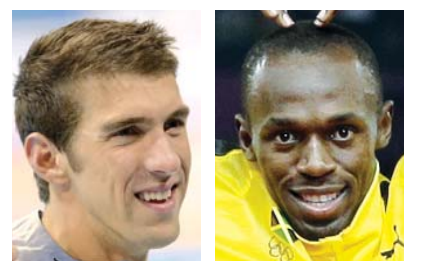
반면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지존' 엘레나 이신바에바(러시아)는 대회 3회 연속 우승에 실패하며 쓸쓸히 물러났고, 한국 역도의 자존심 장미란(고양시청)도 부상 후유증에 막혀 노메달의 아쉬움 속에 대회를 끝냈다.

이렇듯 이번 런던올림픽은 걸출한 스포츠 스타들의 경연장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세월의 무게에 밀린 일부 선수들에게는 '고별 무대'가 됐다.

수영에서는 '여자 펠프스'로 불리는 '17세 소녀' 미시 프랭클린(미국)이 배영 200m에서 세계신기록(2분04초06)으로 우승하더니 배영 100m과 계영 800m에 이어 혼계영 400m까지 금메달을 추가해 4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중국 수영의 자존심 쑤양과 '신예' 예스원의 약진도 돋보였다.

한국 선수로는 남자 기계체조에서 사



펠프스 볼트



양학선

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양학선(한국체대)과 여자 펜싱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김지연(익산시청)도 확실한 '뜬별'이 됐다.

반면 최고의 성적을 기대했지만 부상과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한 선수도 있었다. '러시아 미녀새' 이신바에바는 장대높이뛰기 결선에서 4m70에 머물러 동메달을 목에 거는데 그쳤다.

한국 역도의 자존심 사재혁(강원도청)도 남자 77kg급에서 인상 2차 시기에 162kg을 시도하다가 팔을 다쳐 메달의 꿈을 접었다. 또 장미란(고양시청)도 전성기의 함께 공식기록 326kg보다 훨씬 낮은 289kg로 4위에 그쳐 노메달의 설움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연합뉴스

# '금10-10위' 초과 달성 '런던의 기적'

## 양궁·사격·유도·펜싱·체조 금빛 합창 베이징 올림픽 넘어 역대 최고 성적표

양궁과 사격이 끝나고 유도와 펜싱이 허리를 받친 뒤 레슬링, 체조, 태권도가 '금빛 합창'의 마무리를 맡았다.

한국 선수단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목표 내세운 '10-10'(금메달 10개 이상-종합 10위 이내)을 가볍게 넘어서면서 양과 질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임원 129명과 선수 245명으로 구성된 22개 종목에 출전한 한국은 11일(현지시간)까지 금메달 1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복싱 은메달 확보)를 따내 종합 5위로 '10-10' 목표를 여유 있게 달성했다.

특히 역대 최다 금메달을 작성한 2008년 베이징 대회(금 13개)와 동률의 성적을 기록,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금 37개)에 이어 두 번째 순위에 올랐다.

한국이 '10-10'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

었던 것은 양궁과 사격에서 각각 3개씩의 금메달을 차지한 게 큰 힘이 됐다.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남녀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고, 남자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사격에서 울려 퍼진 '금빛 총성'도 10-10 달성의 견인차가 됐다.

'간판스타' 진종오(KT)가 남자 10m 공기 권총 우승으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뒤 남자 50m 권총에서 대회 2연패 달성에 성공했다.

진종오의 뒤를 이어 김장미(부산시청)가 여자 25m 권총에서 금메달을 보태 사격은 이번 대회에서 금 3개, 은 2개를 확보, 종합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양궁과 사격의 선전에 힘을 보탠 종목은 펜싱과 유도다.

펜싱은 신아람(계룡시청)의 '멈춘 1초' 사건과 '에이스' 남현희(성남시청)의 노메달로 위기를 맞았지만 최병철(화성시청)의 플뢰레 개인전 동메달로 본격적인 메달 획득의 시동을 걸었다. 곧바로 남자 에페 정진선(화성시청)의 개인전 동메달에 이어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 나선 김지연(익산시청)이 한국 여자 선수로는 사상 첫 금메달이자 사브르 종목 사상 첫 메달을 수확해 분위기를 탔다.

여자 플뢰레 대표팀의 단체인 동메달에 이어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인 정상에 올라 금메달을 보냈다.

유도는 애초 목표를 달성하며 이름값을 했다.

남자 66kg급의 조준호(한국마사회)가 8강전에서 '관정번복'의 위기를 뚫고 동메달을 차지해 첫 메달 소식을 알린 유도는 '에이스' 김재범(한국마사회)이 남자 81kg급에서 우승한 데 이어 '백전노장' 송대남(남양주시청)이 예상 밖의 금메달을 보태 애초 목표로 잡은 금메달 2개 달성에 성공했다.

유달리 반기는 금메달도 있다.

남자 기계체조의 양학선(한국체대)은 도마에서 '양학선'과 '스카라 트리플' 기술을 앞세워 금메달을 따내는 남보를 전했다.

또 남자 레슬링의 기대주 김현우(삼성생명)가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내 2004년 베이징 대회에서 정지현(삼성생명) 이후 8년 만에 '금빛 환호'를 외쳤다.

또 홍명보 감독이 이끈 축구대표팀도 일본과의 파를 따리는 3-4위전에서 2-0으로 승리해 1948년 런던 대회 이후 사상 첫 메달 획득의 기쁨을 누렸다.

비록 메달은 못받았지만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여자 리듬체조 결선에 올라 종합 5위를 차지한 손연재(세종고)의 활약도 눈에 띈다.

또 '금메달 발'으로 손꼽힌 태권도에서 황경선(고양시청)이 여자 67kg급에서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이밖에 여자 핸드볼은 3-4위전에서 스페인과 연장 혈투 끝에 패해 부문을 삼켰고, 여자 배구도 3-4위전에서 '라이벌' 일본에 막혀 노메달에 그쳤다. /연합뉴스

# 세계新 44개 풍성한 수확

근대올림픽 30회째를 맞은 2012 런던올림픽은 기록 면에서도 풍성한 결과물을 남겼다.

11일(현지시간)까지 벌어진 15일간의 열전에서 11개의 세계 신기록을 쏟아낸 역도를 필두로 육상(4개), 수영(9개), 사이클(10개), 사격(8개), 양궁(2개) 등 6개 종목에서 44차례 세계기록이 새 주인을 맞았다.

런던올림픽 신기록 레이스의 시작을 알린 것은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이었다.

'양궁 황제' 임동현(청주시청)은 개막 첫날 남자 양궁 랭킹라운드(순위결정전)에서 72발 합계 699점을 쏴 지난 5월 자신이 세웠던 종전 기록(696점)을 갈아치웠다.

수영장에서는 오렌 '신기록 가뭄'이 단비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서 무려 9개의 세계

기록이 쏟아졌다.

육상에서는 의미 있는 신기록이 4개 나왔다. 미국 여자 400m 계주 대표팀은 10일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40초 82라는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육상에서 '번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소속된 자메이카 대표팀은 폐막을 하루 앞둔 11일 남자 400m 계주에서 종전 기록(37초04)을 0.2초나 단축한 36초84의 세계 신기록을 작성해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는 금메달 4개를 포함해 6개의 메달을 휩쓸어 이번의 올림픽에서 따낸 메달 수를 22개로 늘리고 이 부문 역대 최고 자리에 올라섰다. /연합뉴스